

디아스포라의 기억과 목소리의 재현

- 김숨의 『떠도는 땅』을 중심으로

이 숙*

차 례

- | | |
|---------------------|--------------------|
| 1. 들어가며 | 4. 다성적 목소리와 문학적 증언 |
| 2. 역사적 기억과 문학적 기억 | 5. 고통과 생명력 |
| 3. 기억의 공간과 디아스포라의 삶 | 6. 나가며 |

국문초록

이 논문은 디아스포라 문학의 관점에서 김숨의 소설 『떠도는 땅』에 재현된 기억과 목소리를 탐색한 글이다. 이 글의 논의는 그간 작가가 천착해왔던 역사적 경험을 소설로 형상화한 작품을 탐색하는 작업이자, 기억, 공간, 목소리라는 서사성의 요소와 세 요소 간의 접합에 주목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작가 김숨은 고려인 강제이주(1937)의 비극이라는 역사적 기억과 작중인물의 개인적 기억을 결합하고 작가의식을 보태어 문학적 기억으로 재현한다. 『떠도는 땅』에서는 작가의 공간적 상상력이 촘촘히 누벼져 있는데, 고려인 디아스포라의 삶과 연관된 공간은 모국인 식민지 조선, 이

*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주국인 러시아 연해주, 중앙아시아다. 서사 속에서 이 ‘기억의 공간’은 농사를 짓고 정주할 ‘땅(흙)’으로 실물화된다. 이처럼 고려인 디아스포라의 기억의 공간은 뿌리내리고 정주하고 싶은 역사공동체의 욕망을 담은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다중 초점화를 수반한 복수 화자의 목소리와 다양한 소리로 드러나는 다성성은 국가 및 민족의 다중적 정체성을 발현한다. 서사는 고려인 디아스포라 존재의 정체성이 혼종적이며, 존재론적 인식에 있어서도 개별적 사례로 인식해야 함을 역설한다. 각기 사연을 품은 『떠도는 땅』의 인물들은 고통스러운 삶의 여건에서도 생존을 향한 의지, 생명력을 간단없이 견지해나간다. 작가 김숨은 『떠도는 땅』을 통해 유망의 삶을 사는 존재들의 기억과 목소리를 재현함으로써 디아스포라의 존재론적 가치를 문학적으로 증언하고 있다.

주제어 : 김숨, 『떠도는 땅』, 디아스포라, 기억, 공간, 목소리, 증언, 고통, 생명(생명력)

1. 들어가며

한국 역사 속 디아스포라(Diaspora, 이산(離散), 흩어짐)¹⁾를 재현한 소

1) 1990년대에 들어서 디아스포라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디아스포라는 유대인의 경험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의 국제이주, 망명, 난민, 이주노동자, 민족공동체, 문화적 차이, 정체성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 모든 디아스포라를 일률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무리이다. 최근의 공동체 연구에서 공동체를 구성원들의 상호작용, 소속감, 연대감의 수준에 따라 공동체성이 강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약하게 나타나기도 하는 변수의 개념으로 보는 것은 디아스포라를 이해하는 데 시사점을 준다. 공동체와 마찬가지로 디아스포라 중에는 사프란이 제시한 속성들을 대부분 충족하여 디아스포라의 원형에 가까운 것이 있는가 하면 부분적으로만 디아스포라의 성격이 나타나는 것도 있다. 이렇게 디아스포라

설은 리얼리즘 문학이자 역사소설의 성격을 갖는다. 현실에 대한 뾰족한 묘사를 통해 현실의 객관적 인식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리얼리즘 문학의 외양을, 역사적 실체에 대한 탐구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역사소설의 외양을 띠게 된다. 따라서 디아스포라 소설은 역사성과 사실성을 내적으로 담보한 문학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 살펴볼 김숨의 장편소설 『떠도는 땅』(2020)은 고려인 강제이주(1937)와 관련된 역사적 사건을 재현하면서 현실에 대한 실체적 구명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성과 사실성을 보여주는 작품이며 고려인 디아스포라의 삶을 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디아스포라 소설에 해당한다.

작가 김숨(1974-)은 단편소설 『느림에 대하여』(1997)로 등단한 이래, 잔혹하고 그로테스크한 현실에 주목한 작품들에서 섬세하고 시적인 문체를 보여주었으며, 특히 일본군 ‘위안부’라는 역사적 존재에 주목하여 비극의 역사를 정밀하게 문학적으로 재현하는 등 인간 존엄의 역사를 문학으로 복원하며 깊이 있고 다채로운 작품 세계를 펼쳐왔다고 평가되어왔다.²⁾ 이한열 열사를 모티브로 삼은 『L의 운동화』(2016)나, 『뿌리 이야기』(2015) 이후 천착했던 일본군 ‘위안부’를 비롯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문학적 재현은 고려인³⁾ 디아스포라의 삶을 재현한 『떠도는 땅』

를 가부가 아니라 정도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다양한 형태의 디아스포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윤인진, 『코리안 디아스포라 - 재외한인의 이주, 적응, 정체성』, 고려대학교출판부, 2004, 5-7쪽).

2) 현재까지 김숨에 대한 연구로는 박은혜(2017), 나푸름(2019), 신서영(2020)의 석사 논문과, 다른 작품과 비교하며 논의한 정지혜(2015), 정예술(2019) 등의 석사 논문, 다른 작품들과 함께 치유 담론의 관점에서 살펴본 홍단비(2014), 증언소설의 관점에서 살펴본 김민교(2020)의 박사 논문이 있다. 이외에 공종구(2015), 김형중(2017), 길혜민(2017), 최진석(2018), 김소륜(2019), 소영현(2019), 배지연(2020), 오태호(2021) 등의 학술논문과, 다수의 평론이 있다. 근래 들어서는 주로 일본군 ‘위안부’ 서사의 측면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데, 가족 서사, 증언 문학, 치유 담론, 불임 모티프, 병리학적 상상력에 주목하여 작가의 역사의식, 사회적 역할 등을 탐구한 경우가 많다.

(2020)⁴⁾에 이르러 소재적 다양성과 한층 깊어진 역사의식으로 이어졌다. 『떠도는 땅』은 “일본군 ‘위안부’를 다룬 전작들과 마찬가지로, 기억과 증언이라는 서사적 방식을 통해 역사적 재현에 천착하는 김숨 소설의 특성⁵⁾을 오롯이 드러내보인다. 이처럼 김숨의 역사소설에서 “증언과 문학의 서사성이 수렴되는 지점⁶⁾을 보여주고 증언을 매개로 한 재현의 방식을 다채롭게 구사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며, 『떠도는 땅』을 비롯한 김숨의 소설은 역사소설에서 증언의 서사적 역할을 탐구할 때 유효한 텍스트라고 볼 수 있다.⁷⁾”

이에 이 글에서는 김숨의 『떠도는 땅』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아 디아스포라 소설의 관점에서 ‘역사적 기억’과 ‘문학적 기억’의 문제에 우선 주목해보고자 한다. 이어서 디아스포라를 재현 대상으로 삼은 이 작품의 서사적 특징과 함께 고려인 디아스포라의 삶과 문학적 재현 양상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떠도는 땅』은 작가가 실제 고려인으로서 현실의 삶과 밀착된 문학

3) 이 글에서는 내용 전개상 작품의 본문 중에 사용되는 ‘조선인’과 후대에 지칭되는 ‘고려인’을 함께 사용하기로 한다.

4) 전작 『한 명』의 서사가 한 인간의 고백으로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증언이 역사에 기록되지 않고 “오직 공동체의 기억을 통해서만 보존되고 전승된다. 문학의 소임은 또한 그러한 공동의 기억을 형성하는 이야기를 만드는 것”(차선일, 『증언의 기록에서 기억의 시간으로 - 김숨, 『한 명』 (현대문학, 2016)』, 『오늘의 문예비평』 제103호, 오늘의문예비평, 2016. 12, 310-311쪽)임을 알려주었듯이, 『떠도는 땅』의 서사는 고려인 강제이주를 비롯한 고려인 디아스포라 역사에 대한 “공동의 기억을 형성하는 이야기”임을 알려준다.

5) 배지연·권응상, 「(철)길 위의 사람들과 떠도는 영혼 - 김숨의 『떠도는 땅』에 나타나는 모빌리티와 이주의 문제를 중심으로」, 『어문론총』 제88호, 한국문학언어학회, 2021. 6, 69쪽.

6) loc. cit.

7) 역사소설과 증언소설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떠도는 땅』은 디아스포라의 삶과 기억에 대해 현재적 의미를 추적하는 작품으로서 의미가 있다. 현재적 즉 “당대적 삶의 모순을 보임으로써 그 극복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사회와 역사에서 소외된 군상들을 찾아 복원한다는 점에서 작가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는”(정찬영, 『한국 증언소설의 논리』, 예림기획, 2000, 41쪽.) 작품이다.

세계를 보여준 조명희(1894-1938), 한진(1931-1993), 아나톨리 김(1939-), 박미하일(1949-)과 같은 디아스포라 작가의 자전적 작품과는 달리,⁸⁾ 이규정(1937-)의 『사할린』(2017)⁹⁾과 같이 작중 인물을 디아스포라로 설정하여 서사를 전개한 비자전적 작품이다. 따라서 작품에 대한 분석은 디아스포라 출신 작가의 작품과는 다소 차별화되는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실상 고려인이 아닌 작가가 고려인 디아스포라를 재현한 작품을 내놓음으로써 가시화되는 효과 중의 하나는 작가의 전기적 요소에 대한 관심에서 비껴나 작품 내적 요소에 관심을 더욱 집중하게 만든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측면은 작가가 전작들에서 일본군 ‘위안부’라는 역사적 존재에 주목함으로써 가리었던 역사의 실존에 주목하게 만들었던 선례를 상기시킨다.

이 글의 논의는 일차적으로 고려인 디아스포라에 대한 최근 소설 작품의 성과를 확인하는 작업에 해당한다. 나아가 디아스포라 문학 연구에서 소재주의적 관심을 넘어 서사적 요소의 고유성 및 독창성에 주목하여

- 8) 디아스포라 특히 고려인 디아스포라 작가의 작품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초기 연구의 성과로서 김종희 편저의 『한민족 문화권의 문학』(국학자료원, 2003), 장사선과 우정권 공저의 『고려인 디아스포라 문학 연구』(월인, 2005) 단행본을 비롯하여 『디아스포라 연구』, 『국제한인문학연구』 등 학회 논문 등을 통해서 다수의 연구자들이 연구 성과를 집적해왔다. 디아스포라 작가에 대한 연구 즉 재외 한인 문학에 대한 연구는 “불행한 역사를 살았던 재외 한인 문학에 대한 연구는 결국 억압받는 소수자에 대한 인식적 깨달음을 주기 위한 것”(김남석, “디아스포라문학은 우리 문학 외연 넓힐 자산”, 국제신문 인터뷰, 2016.8.29.)이기에 더욱 의미 있는 연구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작가 김숨의 경우 그간 역사적 사건에 대한 진중한 재현으로 주목받았던 만큼 작가의식의 측면에서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창작자로 볼 수 있다. 덧붙여 전작에서 관심을 가진 일본군 ‘위안부’ 또한 디아스포라의 형상을 띠다고도 볼 수 있다.
- 9) 이 작품은 1996년에 출간된 『먼 땅 가까운 하늘』의 개정판으로 193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러시아 사할린 동포 문제를 오랜 기간에 걸친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재현해낸 소설이다. 『떠도는 땅』과 마찬가지로 작가의 비자전적 작품이기 때문에 서사적 차원에서의 비교 분석과 더불어 ‘포스트메모리(postmemory, 역사적 사건을 직접 겪지 않은 이들이 획득한 기억)’의 관점에서도 확장하여 비교 연구할 만한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작품의 문학적 완성도를 다각도로 탐색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구체적으로는 재현의 대상이자 텍스트 내적 응집체인 ‘기억’, ‘공간’과 접합된 ‘목소리’의 문제에 귀 기울임으로써 텍스트 의미망 분석에 필요한 관점의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연구라고 볼 수 있다.

2. 역사적 기억과 문학적 기억

디아스포라 소설 문학은 역사적 계기 등의 여러 이유로 모국을 떠나 이주하여 흩어져 사는 이들 즉 디아스포라의 생존과 삶을 서사화한 작품으로 정의할 수 있다.

작가 김숨은 『떠도는 땅』에서 소련(러시아) 거주 고려인이 체험한 유맹(流氓)의 삶을 재현했다. 작품의 표제인 ‘떠도는 땅’은 글자 그대로 이산과 부유를 표상한다. 고려인들이 떠들게 된 땅, 그 유맹의 공간은 현재 중앙아시아 지역의 카자흐 공화국 및 우즈베크 공화국 등으로 알려져 있다. 고려인 강제이주는 1937년 당시 민족재배치 정책의 일환으로서 스탈린 정권에 의해 소련의 극동(원동) 지역에 거주하던 약 17만 명의 고려인이 중앙아시아로 강제적으로 이주한 사건을 가리킨다. 『떠도는 땅』에서는 바로 이 강제이주열차를 타고 가는 고려인들의 비극적 역사가 한 달여 간의 ‘고난의 이주’라는 마스터플롯(masterplot)에 담겨 있다.

고려인 강제이주 역사는 ‘역사적 기억’에 해당한다. 그리고 작가에 의해 소설에서 펼쳐지는 사건 발생 직후와 그 후 정착 초기의 이야기는 ‘문학적 기억’에 해당한다. 역사적 기억은 문학적 기억의 모태가 된다. 작가는 서사 속에서 이러한 역사적 기억을 문학적 기억으로 어떻게 재현하는가? 다시 말해 『떠도는 땅』에서 역사적 기억을 말하는 소설의 방식은 어떠한가?¹⁰⁾

10) 이 글에서 논의하는 역사적 기억은 일차적으로 역사적 사료로서 실증적으로 전

문학 창작에서의 기억 즉 문학적 기억은 정통성과 정체성을 유지하는 일반적인 기억이 아니라 개인의/작가의 특수한 기억으로 볼 수 있다. 다른 기억들이 공통적인 시점을 가지고 있는 데 비하여 문학적 기억은 특수하고도 개별적인 시점을 가지고 있다. 역사가 과거를 재현한다면 회상 기억, 즉 문학은 그것을 현재로 활성화한다. 역사가 모두에게 속하지만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는 데 비하여 문학은 작가/개인의 특수한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모든 이의 문제가 될 수 있다.¹¹⁾

이처럼 보편적 기억으로서 역사적 기억과 특수한 기억으로서 문학적 기억은 차별점이 있다. 『떠도는 땅』 또한 역사적 기억을 바탕으로 하고, 특수하고 개별적인 인물들 하나하나에 주목하여 서사화(스토리텔링)함으로써 서사적으로는 역사적 기억과 문학적 기억의 혼용을 꾀한다.¹²⁾

수된 기억을 일컫는다. 한편 문학적 기억은 알라이다 아스만의 ‘문화적 기억’의 개념과 맞는 것으로 작가의 포스트메모리에 대한 욕망과 관련된 기억이라고도 볼 수 있다. 물론 역사적 기억은 공식(공적) 기억이자 사회적 기억으로서 역사적 기억과, 자전적 경험을 한 이들 개개인의 집합적 기억 둘 다일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전자의 측면에 집중하여 역사적 기억을 바라보면서 집합 기억의 인자가 되는 인물들의 기억을 개인적(사적, 자(서)전적) 기억으로 지칭하기로 한다. 이때 증언은 집합 기억을 재현하는 하나의 매개 방식이 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이 글에서는 다종다기한 기억을 통해 공식 기억과 다를 수 있는 기억의 틈새를 벌려 그 문학적(서사적) 재현 양상을 바라보고자 하는 것이다.

11) 변학수, 『문학적 기억의 탄생』, 열린책들, 2008, 31-54쪽.

이 책에서 변학수는 알라이다 아스만 등 기억 연구자들의 논의를 인용하며 문학적 기억, 역사적 기억, 문화적 기억 등의 개념을 논구하고 있다. 저자는 “역사적 기억이 어떤 것을 단순히 되풀이 오는 것이라면, 문학적 기억은 어떤 것을 새롭게 만드는 것”(같은 책, 41쪽.)이고 이는 문학 창작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한다.

12) 이 글에서는 문학적 기억의 범주 안에 문학 작품을 창작하는 작가의 기억과 문학 작품에 등장하는 작중인물의 개인적(자서전적) 기억을 함께 포함하여 다룬다. 다시 말해 작가에 의해 재현된 인물들의 기억, 개인적 기억도 문학적 기억이며, 창작 의도 및 작가의식을 내포한 작가의 기억도 문학적 기억 즉 문학작품으로서의 기억으로 보기로 한다. 변학수는 저서(『문학적 기억의 탄생』)에서 언급했다시피 다소 자의적으로 이 ‘문학적 기억’의 개념을 펼치고 있는데 본 연구자는 이 개념을 일반적인 의미 활용의 관점에서 차용하되, 알라이다 아스만, 피에

그 결과 작품에 투입된 역사적 기억은 문학적 기억으로 배출된다. 이때 배출된 것은 탈바꿈된 승화의 결과물이다. 이 기억은 문학 창작자, 즉 작가에 의한 역사적 기억과 개인적 기억의 결합 혹은 재창조로 볼 수 있다.¹³⁾

전제주의 정권에서 강제이주와 같은 집단테러는 정권 반대세력 또는 위협세력을 제거하여 정권을 유지하는 효과적인 통치수단이였다. 이주 후 고려인의 정착은 이주 과정만큼이나 힘든 것이었다. 물자의 부족, 주거문제, 노동자, 공무원, 가내수공업자의 취업, 농기구의 부족, 의료시설 미비 등의 문제가 당장 발생하였다.¹⁴⁾ 고려인들은 강제이주 이후 적성 국가의 국민으로 취급받고 거주이전의 자유마저 박탈당한 채 농촌의 집단농장에서 고립적인 생활을 하였다.¹⁵⁾ 소설 속에서는 이러한 역사적 기억을 바탕 삼아 갖 이주한 시기 황량한 대지의 풍경과 정착 후 험난한 생활이 짙게 묘사되어 있다.

작년 가을 페르바야 레치가 역을 떠난 열차는 겨울이 돼서야 최종 목적지에 도착했다. 열차에서 내린 그녀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싸락눈 덮인 구름과 시든 갈대밭뿐이었다. 트럭 수십 대가 기다리고 있다 열차에서 내린 조선인들을 나누어 싣고 사방으로 흩어져갔다. 그녀는 친정아버지와 울가를 만나지 못했다. 그녀가 얼떨결에 올라탄 트럭에는 황 노

르 노라, 모리스 알박스, 허버트 허시 등 기억 연구자들의 논의와 연관지어 작품 해석에 적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앞서 말했듯 이글에서의 ‘문학적 기억’은 알라이다 아스만(『기억의 공간』)의 용어로 ‘문화적 기억’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하나의 문학작품을 글자/텍스트 매체로서 민족적, 정치적 정체성을 보존하고 사회적, 역사적 의미를 추적하는 문화적 기억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13) 이렇게 보면, 작가는 ‘역사’가 아닌 ‘역사소설’을 통해 집단적 정체성보다는 개인의 정체성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 정체성을 여럿의 목소리, 복수의 화자를 통해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정체성과 목소리에 대해서는 <4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겠다.

14) 윤인진, 앞의 책, 2004, 98쪽.

15) 위의 책, 317쪽.

인 가족이 타고 있었다. 트럭은 태양을 등지고 나무 한 그루 보이지 않는 모래벌판을 달려나갔다. 모래바람 속에 사람들을 부러놓고 황급히 떠났다. 모든 게 준비돼 있다는 말은 거짓이었다. 그곳엔 집도, 가축도, 농기구도 없었다. “아, 죽으라고 우리를 모래땅에 데려다놓았구나!” 들 속이 퍼질러 앉아 통곡했다. 자신이 버려진 땅이 기근과 전염병으로 수백 명이 죽은 땅이라는 걸, 콜호스에 반대하던 농부들이 자신이 키우던 가축들을 무자비하게 도살한 땅이라는 걸, 금실은 이듬해 봄이 돼서야 알았다.(『떠도는 땅』, 274-275쪽)

소설 속에서는 강제이주의 대표적 이유가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등 주로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저간의 사정이 미메시스적으로 제시된다. 이는 익히 알려져 있는 역사적 기억에 해당한다. 일본 첩자로 오해하기 쉬운 조선인에 대한 경계심으로 스탈린 정권은 강압적이고 선제적인 정책을 시행했는데 이것이 바로 누대에 걸쳐 아픔으로 자리하게 된 고려인 강제이주였다.

그날 금실은 이웃 여자들이 앞집 마당에 모여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국경에서 오늘날일 전쟁이 터질 거라네요. 일본 관동군하고 소비에트군이 라즈돌나야강을 사이에 두고 하루가 멀다 하고 서로 총질을 해대고 있대요.”

조선은 여전히 일본의 식민지였고 중국과 일본은 전쟁 중이었다.

“스탈린이 왜 우리 조선인들을 멀리 쫓아버리지 못해 안달하는지 알아?”

“왜요?”

“피부색이 누렇고 눈이 찢어졌기 때문이야.”

“그걸 이제 알았대요?”

“그게 아니라 일본 간첩 노릇을 하는 조선인들 때문이래요.”

“조선인들이 일본 간첩 노릇을 해요?”

“생긴 게 일본인 비슷하고 일본말을 잘하니까 그런 의심을 하는 거겠지요.”(『떠도는 땅』, 51쪽)¹⁶⁾

소설 속에서 서술되는 등장인물들의 기억은 허구세계 속 개인적 기억에 해당한다. 작품 속에서 서술(발화)되는 인물들의 개인(인물)적 기억에 의해 작품 속 사건의 개연성은 확보되며 개인적 기억의 재현은 서사의 구성과 주제 형성을 돕는 셈이다.

또한 인물의 개인적 기억 혹은 자서전적 기억 속에는 역사적인 사건을 목격해 회상하는 것을 포함하며, 따라서 역사가 구성되는 기본적인 토대로 작동할 수도 있다. 허버트 허시가 말한 바 개인적 기억은 집합적 기억 혹은 사회적 기억을 받치고 있는 주춧돌이므로¹⁷⁾ 이는 역사적 사료 속에서는 실증적 자료로, 리얼리즘 소설에서는 서사적 요소로 주요하게 기능한다.

역사적 기억(공적 기억)은 현재와 미래를 과거로부터 분리하지만, 문학적 기억은 과거, 현재, 미래에 다리를 놓으므로 개인 내지는 특수한 집단의 기억의 <터> 자체일 수 있으며, 개인이나 집단의 특수한 가치와 규범에서 정체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¹⁸⁾ 고려인의 기억의 터는 일차적으로 떠나온 모국 식민지 조선과 새로운 고향인 극동(원동), 연해주다. 문학적 기억은 기억의 터 자체일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떠도는 땅』의 서사적 의미로서 ‘공간’ 즉 ‘기억의 터’의 의미를 구체적 의미를 찾고, 이 터에서 디아스포라의 삶을 사는 이야기는 장을 달리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3. 기억의 공간과 디아스포라의 삶

작중인물들의 개인적 기억의 주요 내용은 ‘민족’과 더불어 ‘땅’이다. 이

16) 김숨, 『떠도는 땅』, 은행나무, 2020. 이하 이책의 인용문의 표기를 따른다.

17) 허버트 허시, 강성현 역, 『제노사이드와 기억의 정치 - 삶을 위한 죽음의 연구』, 책세상, 2009, 35쪽.

18) 변학수, 앞의 책, 51쪽.

는 앞서 말했듯 식민지 조선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삶의 터전으로서 거주하는 땅, 연해주라는 공간/터다. 그들에게 땅은 그저 “땅이 있어서 씨앗을 심는”(13쪽) 생래적 공간이며 여기에서 그들은 으레 “조선인들은 한곳에 뿌리내리고 땅을 일구며 살아야”(183쪽) 한다고 굳게 믿는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 굶어 죽지 않게 해달라고, 뽕뽕이 흠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리고요?”

“살던 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여자는 여기저기 바늘로 기운 저고리 소매에 코를 풀었다.

“내 아버지 고향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죽을 때가 되면 기어 서라도 고향에 가 고향집 뒷산에서 죽을 거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는데 타작마당에서 숨을 거두셨어. 빌리 간 김에 무덤가 흙도 한 줌 퍼와야지.”

“흙은 왜요?”

“가져가려고. 죽은 내 아버지의 살과 뼈가 섞인 흙이니까.”(『떠도는 땅』, 53쪽)

디디고 있는 땅, 그 땅의 흙은 그들에게 더없이 소중한 것이며, 고향은 태어나고 자식을 낳은 곳이므로 존재론적 가치와 생존적 의미가 담지된 공간이다. 주지하듯 조선인들은 궁핍한 삶에서 벗어나고자 땅을 찾아 러시아로 왔다. 그러나 “모든 조선인이 땅을 찾아 러시아로 온 것은 아니었다.”(131쪽) 신분 차별에 대한 저항, 넓은 세상에 대한 갈망,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조국의 고향을 떠나 이국의 먼 땅으로 ‘떠도는 삶’을 선택하기도 하였다.

“유대인들은 수천 년 전부터 떠돌며 살았다면서요?”

“수천 년이나요?”

“우리도 이것이 시작인지 모르지요.” 인설이 증얼거린다.

“그게 무슨 밀이요?” 일천이 대뜸 묻는다.

“우리도 이것을 시작으로 떠돌며 살게 될지도 모르지요.”

“우리 조선인이 떠돌며 살아? 우리 조선인들은 한곳에 뿌리내리고 땅을 일구며 살아야 해…….” 황 노인이 항변한다.

“어르신, 고향 떠나온 뒤로 내내 떠돌며 살지 않으셨어요?”

“그야 그랬지…… 땅이 떠도는 것인지, 내가 떠도는 것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떠돌았지…… 첩첩산중 두땃골에서 내어난 내가 러시아 땅을 떠돌며 살 줄이야…….” 황 노인은 목이 매 말을 잊지 못한다. (『떠도는 땅』, 183쪽)

마치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처럼 고려인들은 식민지 조선에서 러시아 연해주, 그리고 다시 중앙아시아까지 이산과 분산을 거듭하면서 ‘기억의 공간’은 다층화된다.¹⁹⁾ 고려인들에게 기억의 공간은 정주해서 ‘씨앗’을 뿌리고 농사지을 수 있는 ‘땅’의 의미로 실물화된다. 이로써 “한곳에 뿌리내리고 땅을 일구며 살아가야” 하는 조선인, 조선민족의 정체성 발현의 한 축이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그런 까닭에 정주하지 못하는 상황은 곧바로 생존의 최소 여건이라는 실존적 토대를 흔들고 ‘땅’에 대한 본능적이고 즉각적인 욕망을 일깨운다. 뿌리내리고 싶은 욕망, 정주하고 싶은 욕망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므로 고려인들에게 ‘땅’은 다음과 같이 인간화되기까지 하는, 경외할 만한 대상이다.²⁰⁾

19) 고려인에게는 이주, 강제이주, 재이주의 역사가 있다. 연해주 지역에서 코리안 디아스포라 역사가 이뤄졌는데, 한반도에서 연해주로의 이주(1863-),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의 강제이주(1937), 다시 연해주로 재이주(1991-)라는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역사가 있으며, 연해주는 지금까지도 대표적인 한인 거주지역에 해당한다.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편, 『코리안의 민족정체성』, 도서출판 선인, 2012, 222쪽.)

20) 작가는 자신이 지닌 “뿌리 내리고 싶어 하는 욕망”을 발설하면서 작품 속 ‘땅’의 의미, 작품 창작 동기를 이야기한 바 있다. “(…) 그 의문, 그 혼란이 제게 뿌리 내리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연민을 자연스럽게 불러왔고,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쓰게 했고, 계속 쓰게 하는 것 같다 싶어요. 뿌리 내리고 싶어 하는 의지와 그것에 반대되는, 움직여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게 하는 에너지, 그 둘 사이에 팽팽한 긴장 속에 저라는 사람이 위치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작가 인터뷰 『조금씩, 약하게』, 『AXT』, 제32호, 2020. 9, 은행나무, 72쪽.)

“땅은 슬퍼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긴대요.”

“우리를 위한 땅이 있겠지요.”

“땅이 있어야 벼를 심으니까요.”

“벼를 심어야 밥을 먹고요.”

“밥을 먹어야 사랑도 하지요.”(『떠도는 땅』, 266쪽)

벼를 심는 땅이 있어야 밥을 먹고 사랑을 한다는 것, 이것은 인간에게 원초적인 것이며 이주의 고통을 겪은 디아스포라에게는 더없이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은 ‘땅’이다. 요컨대 농사 지을 땅과 관련된 ‘디아스포라의 공간’은 고려인 역사공동체의 ‘기억의 공간(터)’이다.

덧붙여 또 하나의 서사 공간인 ‘강제이주열차’는 ‘떠나온 땅’과 ‘떠도는 땅’이라는 이산의 공간(땅)과 함께 현재적이고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강제이주열차는 흡사 수용소와 같은 공간으로 그려져 있다. 강제이주열차는 ‘이동하는’ 수용소이자 ‘예외상태’(아감벤)의 공간이다. 『떠도는 땅』에서는 열차(이동 공간), 땅/집(정주, 일상 공간)과 같은 체험 공간과 고향(조선/연해주)과 같은 심상공간이 제시되어 있다. 작품의 결말 부분에서, 금실은 손톱 여섯 개가 빠지도록 땅굴집을 지어 거주²¹⁾ 공간을 새롭게 마련하여 갓 태어난 아기와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금실의 집과 이주 과정 중에 아기를 잃었던 슬픔을 딛고 땅굴집을 짓고 아기를 잉태하는 따냐, 요셉 부부의 집은 모두 생명이 움트는 공간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인간 현존재의 공간성의 측면에서 보자면, 인간은 살면서 언제나 언제

21) 오토 프리드리히 볼노는 거주를 인간이 자기 집에서 사는 방식이라고 정의한다. 그에 따르면 거주는 다른 여러 행동들과 비슷하게 내키는 대로 저지르는 행위가 아니라 인간의 본질을 규정하는 행위이며 인간과 세계의 관계 전체를 결정하는 행위이다. 인간은 집에 거주하면서 자신의 참된 본질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오토 프리드리히 볼노, 이기숙 역, 『인간과 공간』, 예코리브르, 2011, 164-165쪽.)

나 자신을 둘러싼 공간에 대한 관계를 통해 규정될 수밖에 없다.²²⁾ 따라서 인간을 공간적인 존재라고 볼 때, 앞서 말했듯 『떠도는 땅』의 주요 서사 공간인 ‘땅’과 ‘고향’, ‘집’은 그 자체가 “부유하는 삶 속에서 정주하고 싶은 욕망”이라는 주제를 발현한다. 실존주의적 의미에서, 원래 이 세상에 “내던져진” 인간은 본질적으로 낯선 곳에 존재한다²³⁾고 볼 수 있는데, 『떠도는 땅』에 등장하는 디아스포라적 존재들은 본질적으로도 현상적으로도, 심상적으로도 구상적으로도, 낯선 곳에 내던져진 이방인이다. 다시 말해 이들은 공간적 존재로서의 인간 즉 인간이 지닌 공간성과 소외된 존재로서의 실존성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캐릭터라고 볼 수 있다.

4. 다성적 목소리와 문학적 증언

앞선 대화(475-476쪽 인용문) 속 황 노인과 인설, 일천과 같은 디아스포라적 존재들에게 ‘기억된 과거’는 “정체성 확보의 문제이자 현실의 해석이며, 가치의 정당화로 연결된다. 기억에 대한 문제는 정치적 동기화, 민족적 형성이라는 주제로 이어”²⁴⁾지기도 한다. 문학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정체성 문제는 기억과 관련해서도, 디아스포라라는 삶의 양태에 관련해서도 주의 깊게 탐구되어왔다. 기억과 정체성, 민족과 정체성, 그리고 이것의 기반이 되는 기억의 공간은 밀접하게 상호 연관되어 있으면서 다층적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학 특히 소설은 일차적으로 인간 존재가 개별자로서 지닌 정체성을 서사를 통해 구현한다. 이와 더불어 역사적 존재 즉 역사적 성원으로서

22) 위의 책, 23쪽.

23) 위의 책, 164-165쪽.

24) 알라이다 아스만, 변학수·채연숙 역, 『기억의 공간: 문화적 기억의 형식과 변천』, 그린비출판사, 2012, 110쪽.

의 보편적 인간상을 구현해내기도 한다. 소설에서 이런 역사적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효과적인 방식 중의 하나가 바로 ‘증언’이다. 증언은 그 형식 자체의 본질상 리얼리티를 확보하면서 텍스트의 내적 의미 즉 주체 창출에 기여하는데, 증언을 토대로 소설적 형상화를 꾀한 『떠도는 땅』은 넓은 의미에서,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과 작가의 역사적 재구성을 동시에 아우르는 사실과 허구의 복합양식”²⁵⁾인 증언소설로 볼 수 있다.²⁶⁾ 실제 역사적 증언을 토대로 하여 문학적 증언을 수행하는 작품이기 때문이다.

화물칸에 탄 27명은 때로는 누구의 목소리인지 분명하지 않은 목소리로 서로의 사연을 나눈다.²⁷⁾ 이들 중 초점화자로서 비중 있게 등장하는

25) 하상일, 『증언소설과 역사 바로 세우기 - 김원일, 『푸른 혼』(이룸, 2005)』, 『실천문학』, 실천문학사, 2005. 5, 355쪽.

26) 작가는 한 인터뷰에서 소설을 쓰게 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뿌리 뽑힌, 떠도는 사람들에 늘 관심이 있었고, 강제이주 열차에 대해 써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역사 공부를 하면서 썼고 전문가의 감수도 받았지만, 역사소설을 쓴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인간들에 대한 이야기죠.”(조일준 기자, 『21이 사랑한 작가 김숨② ‘뿌리 뽑힌 사람들’』, 『한겨레21』 제1326호, 한겨레신문사, 2020. 8. 14.) 이 인터뷰에서 작가는 역사소설이라는 장르적 측면에 방점을 찍지는 않았지만 창작자로서 철저한 역사 인식하에, 강제이주열차에 실려 내던져진 고려인의 이주 경험에 대한 증언(채록)에 대한 충실한 자료 조사, 전문가 감수 등을 통해 작품의 사실성, 역사성을 내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평소 강제이주열차에 관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피력한 바 있으며, 강제이주열차에 대해 쓰고 싶었는데 쓰려니까 강제이주에 대해 알아야 했고 러시아의 역사를 이해해야 했으며, 공부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이나 접하게 된 사연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이야기를 가져다주었다고 말한 바 있다.(작가 인터뷰 『조금씩, 약하게』, 『AXT』, 제32호, 2020. 9, 은행나무, 70-71쪽 참조)

27) 죽어가는 황노인의 꿈 이야기, 소년 미치카의 목소리, 요셉의 기도 소리 그리고 따냐, 금실, 소덕, 오순, 울가, 들숙, 백순의 목소리와 남자들 풍도, 인설, 허우재, 미치카, 요셉, 일천의 목소리가 공간을 채운다. 이들의 단편적이고 파편적인 목소리를 종합하면 러시아 연해주 조선인의 이주 역사가 재구된다. 이주 열차에 타지 못한 금실의 남편 근석, 안나의 남편 안톤, 인설의 형 이고역, 울가의 남편 강치수, 금실의 아버지 길동수 등은 소식이나 생사를 알 수 없는 이들이다(최경호, 『김숨의 디아스포라문학 - 『떠도는 땅』, 『억압과 결핍의 시대 한국문학 -

금실과 인설이 서술의 비중으로 볼 때 핵심 인물에 가깝다고 볼 수 있지만, 황 노인을 비롯한 나머지 25명 또한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초점화자이자 인물로 등장하며 초점화자가 교체되는 다중 초점화의 양상을 보여 준다. 이들 모두의 시선과 육성은 밑바닥으로부터 시작되는 역사의 목격과 증언이기에 더욱 우릿하다.

27명의 사람들은 서사 속에서 기억의 당사자이며 기억의 전달자 역할을 하는데, 특히 주로 대사로 전달되는 그들의 사연은 목소리의 이미지를 강화시킨다. 기존의 지적대로 이 작품에서 ‘(목)소리’는 ‘냄새’와 함께 서사 전개에서 중요한 기능을 한다. 작가는 문학적 증언의 방식으로 (목)소리의 재현을 택하고 이에 집중한다. 이는 인물들의 성격과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데 기여한다.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타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서사적 상황이 반복된다. 연극에서의 독백이나 방백을 연상시키는 이러한 서사적 상황은 독자에게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독백이나 방백 모두 인물의 대사 전달로서 ‘목소리’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처럼, 작품 속 서사적 상황에서 필연적으로 독자는 발화의 내용뿐만 아니라 발화자로서 목소리의 주체²⁸⁾에 주목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주체이자 타자로서 디아스포라의 목소리들은 좁디좁은 열차

동학농민문학에서 디아스포라문학까지』, 한강, 2021, 326쪽). 작중인물들은 열차 안에서 서로의 안위를 살피며 생존을 도모한다.

28) 국가와 민족의 ‘사이(in-between)’에 존재하는 디아스포라 주체는 “혼종성과 이질성을 특징으로 국가와 디아스포라를 구분하는 경계를 횡단하는 주체”(Brazier & Mannur 5)(황은덕, 『디아스포라와 문화번역 - 수잔 최의 『외국인 학생』을 중심으로』, 『현대영미소설』 제20권1호, 한국현대영미소설학회, 2013, 152쪽)라고 할 수 있으며, 모호하고 불안정한 위치의 주체로 비취질 수 있으나 문화번역(Cultural Translation)을 수행하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혼종적이고 변환적이며 생산적인 이른바 사이 정체성(In-between Identity)을 지닌 주체라고 볼 수 있다. 사이 정체성에 대해서는 문제원의 논문(『경계 횡단하기의 수행적 실천과 사이 정체성 - 경계지대의 문화번역으로서 이주민 영화와 공감장』, 『다문화와 디아스포라연구』 제12집, 한국다문화 디아스포라학회, 2018, 71-74, 93쪽)을 참고.

화물칸 내부에서 다성적 공간을 창출해낸다. 각각의 인물들은 주체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화하여 드러내는 한편, 청취를 통해 자신과 틈 없이 맞닿은 타자에 대한 치열한 인식을 시도하는 것이다. 이 공간에서는 주체와 타자가 뒤섞여 있고 그 위치는 언제든지 자리바꿈 될 수 있다. 이를테면 작품의 초반부에서는 누군지 모를 사람의 목소리, 알 수 없는 소리들이 열차 안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내 새끼들, 먹을 복이 있어서 평생 배불리 먹고 살아라…….

담배를 600개나 배급받았대요…… 추워…… 난로가 꺼졌어요…… 천수를 누리다 자식을 일곱이나 낳은 침대에서 눈을 감았대요…… 등유를 아껴요…… 마음 가는 데 몸도 가게 돼 있어요…… 여보, 태업을 감아요…… 성냥을 긋고 긋는 소리, 양철 그릇과 냄비들이 허공에서 자지러지는 소리, 게딱지 같은 빵 껍질을 뜯어 먹는 소리, 태평스레 코 고는 소리, 맥없이 앓는 소리, 널빤지 뒤틀리는 소리.

그리고 마침내, 석탄더미 같은 어둠 저편에서 열병을 앓는 듯한 소년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엄마, 우린 들개가 되는 건가요.”(『떠도는 땅』, 9쪽)

이처럼 소설의 첫장은 배고픈 삶, 기진한 인생을 짐작하게 하는 소리에 대한 묘사에서부터 시작된다. 들개와도 같은 처지가 될 것을 걱정하며 두려워하는 소년 미치카의 목소리와 짝을 이루는 것이 작품 후반부 사경을 헤매는 힘없는 황 노인의 목소리다. 이처럼 (목)소리는 서사 전개에 중요한 장치로 기능한다. 죽음을 목전에 둔 황 노인은 임종 직전의 환청과 환영 속에서 자신의 존재(론적) 가치를 깨닫기도 한다.

아이 목소리, 나이든 여자 목소리, 젊은 여자 목소리, 사내 목소리…… 온갖 목소리들이 별떼처럼 황 노인의 귓가에서 뿜뿜거린다.

‘아, 내 자손이 이렇게나 많구나!’ (…)

그는 발으로 걸어나간다. 하늘을 한 차례 더 올려다보고 나서야 흠 위에 첩퍼덕 주저앉는다. 그 순간 그의 육체가 쪼그라들어 걸음마도 안

뎌 갓난아기와 같아진다. (...)

그는 자신이 가장 복된 죽음을 맞으려 하고 있다는 걸 깨닫는다. 이 름을 일일이 암기할 수 없을 만큼 붙어난 자손들이 집 마당에 모여 잔치를 벌이고, 천수를 누린 자신은 밭을 갈다 숨을 거두는 것이 복된 죽음이다.

‘땅이 흔들리는군…….’ (『떠도는 땅』, 257-258쪽)

별뿔처럼 뿔뿔거리는 온갖 목소리들은 황 노인 자손들의 목소리이다. 자손들은 황 노인 자신이 살아온 평생의 자취이자 삶의 증거다. 자신의 쇠잔한 육체와는 달리 생생하고 활기찬 자손들을 바라보며 황 노인은 그들을 복된 삶의 증거로 여기며 안도한다. 황 노인의 이런 모습은 생존에의 본능이라는 인간의 원초적 욕망을 일견 보여주고, 비현실적 장면일 지라도 환영으로 등장하는 자손들의 모습은 생명의 지속, 생명의 힘을 역설해준다.

이 작품에서 복수 초점화자의 목소리 재현을 통한 다성적 화법은 익히 주목되어온 부분인데, ‘다성성’²⁹⁾의 형식적 측면은 역사적 기억과 함께 문학적(개인적) 기억을 말하는 이 소설의 특징적인 방식이기도 하다. 실제 작가가 역사적 경험을 겪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소설의 진술은 디아스포라 경험을 지닌 작가의 자서전적 진술 대신 각각의 사연으로 재현되는 인물들의 자서전적 기억으로 채워져 있다.

“독립적이고 병합되지 않는 다양한 목소리들과 의식”³⁰⁾, 다성적인 목소리가 특징적인 이 작품이 보여주는 대화적 관계는, 역사적 사실을 다룬 소설에서 작가의 단일하고 권위적인 목소리가 지배하는 상황을 작가

29) 이 글에서 ‘다성성(多聲性)’은 바흐친의 개념을 참조하되, 보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목소리를 통해 발화되는 다양한 언술의 측면을 가리킨다. 인물들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작중인물들에 투영되는 실제 작가 및 내포작가의 목소리 또한 주제적 측면에서 분석의 대상으로서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인간의 목소리 외의 소리도 이 글의 논의 대상에 포함된다.

30) 한용환, 『다성적 소설과 단성적 소설』, 『소설학 사전』, 고려원, 1995, 100쪽.

가 의도적으로 제어하는 설정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역사에 대해 단선적이거나 완고한 해석을 거부, 저항하거나 유보하고 역사적 진실을 헤집어 밝히는 작가의 서사적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정체성의 측면에서 보자면 민족정체성은 작품 전반에서 산발적으로 재현된다. 파편적 진술과 이미지를 종합해보면 같은 역사의 구성원, 민족의 구성원, 지역(땅)의 구성원 즉 한 집단의 성원으로서의 인식이 드러난다. 그런데 이 인식의 내용 즉 정체성은 다중적이다. 서사 속에서 고려인 인물들의 다층적이고 복잡한 이 ‘다중적 정체성’은 감지된다. 그런데 고려인-한민족이라는 다중적 정체성에는 고려인 내부에서도 세대 간 차이가 있다. 즉 모국에서 태어난 세대와 이주국/정주국에서 태어난 세대 간은 정체성의 차이가 있는 것인데, 우선 윗세대는 이중의(국가적) 디아스포라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층적이고 혼종적인 면모를 보인다. 아랫세대 또한 민족정체성과 국가정체성에서는 혼종적 면모를 보이지만 그 구체적인 양상은 다르다.³¹⁾ “러시아인이면서 조선인”일 수도, 둘 다 아닐 수도 있는 이들이 지닌 ‘사이의 공간성(in-between)’은 고려인 디아스포라를 조망하고 전망하는 데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일례로 황 노인의 아들 일천의 경우, “러시아 땅에서 살려면 조선은 잊어버리고 러시아 법에 순응하며 살아야 한다는 걸 깨우”(187쪽)치게 되면서 조선의 독립은 러시아 땅에 살고 있는 한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여긴다. 이런 그에게 항일운동가의 이미지를 풍기는 인물은 거슬리는 존재 즉 자신에게 해를 끼치고 고통을 주는 ‘반역자’에 가까운 존재로 인식된다. 일천은 현실적인 측면에서 디아스포라의 존재론적 인식 즉 현실적인 입

31) 현재 시점에서, 재러 고려인의 인지적 정체성은 확고한 국민정체성(조국=태어나고 살고 있는 곳) 대 탈경계적 민족정체성(모국=내 선조의 뿌리가 있는 곳)이라는 이중정체성의 특성을 갖는다(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편, 앞의 책, 238-239쪽). 이런 측면에서 작품의 시간적 배경인 1937년 즈음의 아랫세대의 국민정체성(국가정체성)은 러시아(소련)로 윗세대의 정체성과는 또 다른 양상을 띠는 것이라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장에서의 민족정체성과 국가정체성을 보여주는 인물이며 인설은 이와 다른 맥락에서 냉철한 현실 인식과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성향을 보여주는 인물이다.

열차에 갇혀 있는 국경 너머에서 온 ‘낯선 사람들’인 ‘조선인’(고려인)들은 두려움 때문에 자신들이 추방당하고 배제당한다고 여기며 과연 언제쯤이면 ‘낯선 사람’이 아닐 수 있는지에 대해 자괴감 섞인 물음을 던진다.

“우리가 두려운 거예요.”

“우리요?”

“우리 조선인들이요.”

“우리가 왜요? 우린 총도 없는 걸요.”

“어쨌든 국경 너머에서 온 낯선 사람들이니까요.”

“나는 3대째 러시아에서 살고 있어요. 몇 대까지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낯선 사람이 아닐까요?”

“황색인 우리의 피부색이 우유처럼 희어지지 않는 한 영원히 낯선 사람들일걸요.”(『떠도는 땅』, 187쪽)

이처럼 타자로서 겪는 사회적 고통과 억울한 심경, 불안과 두려움이 늘상 잠복해있는 이들은 이주국가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낯선 사람들, ‘영원한 이방인’일 수밖에 없음을 씩씩하게 인식한다. 혼란스러운 이는 더 있다. 고려인과 러시아인 사이에서 태어난 소년 미치카는 “하늘 아래 가장 추하고” “가장 욕심쟁이”이며, “가장 간사스러우며” “가장 사악하며” “변덕스럽고” “아둔하기까지 한” 인간 중에 과연 자기도 속하는지 궁금해하며, “나도 인간이에요?”라며 엄마에게 돌발적인 질문을 던진다. 미치카는 열차 안에서 ‘사이에 있는’ 존재로서 ‘고정되지도 자유롭게 이동하지도 않는’³²⁾ 고려인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인물이다.

32) 문화 이론가인 스텐워드 홀은 디아스포라를 하나의 미학으로 여기면서 여기서 차이, 결합, 혼성성, 서사 등이 디아스포라 미학과 정체성의 문제로 얽혀 있음을

비록 혼란스러운 갈등 상황에 놓일지라도 개별적인 단독성을 지키면서 다중적 정체성을 견지해나갈 것이라고 예상되는, 사이 세대의 미래를 담지한 인물로도 볼 수 있다.

5. 고통과 생명력

『떠도는 땅』에서는 디아스포라의 고통과 그 고통에 공감하며 연대하고 환대하는 이야기도 담겨 있다. 일차적인 연대는 강제이주열차에 동승한 고려인들의 ‘돌봄’의 행위 속에서 확인된다.

한편으로, 고려인을 모국인 한국인(조선인)의 관점에서가 아닌, 이주민을 바라보는 이주국가사람(러시아인)의 시선에서 살펴본다면 작품의 디아스포라적 존재의 의미는 더욱 명확해질 수 있으며 고려인 디아스포라에 대해 보다 완결된 의미를 부여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작품 결말에 등장하는 원주민 여자가 보여주는 금실과 뱃속 아기가 강제이주 조선인들에 대한 동정과 연민 어린 시선은 주목되는 부분이다.

“너희는 무슨 죄를 지어서 사막에 버려졌지?”

혀가 달팽이 집처럼 말려들어서 그녀는 입을 몇 번이나 빙긋거린 뒤

지적한다. 이어 그는 새로운 정체성의 필요성을 촉구하는데, 그가 주장하는 정체성의 개념은 우리에게 확고히 정립된 것도 아니고, 완전히 자유롭게 유동하는 것도 아니며 어느 한 점에 고정된 무엇이 있다면 틈을 벌려 느슨하게 해보자는 것이다.(주하영, 『이중의 디아스포라와 다중적 정체성 - 자리나 빔지와 에밀리 자시르를 중심으로』, 『미술사논단』 제42집, 한국미술연구소, 201쪽.) 본 연구자는 스텐더트 홀의 이러한 의견을 참조할 때 유동적이기도 고정되지도 않은 소년 미치카의 정체성에 접근해 볼 수 있다고 보았다. 실체가 분명하지 않고 모호하기에 생산적인 논의를 이끌어낼 수 있으며 징후적으로라도 미래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에야 겨우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

“죄를 지었지요……”

그녀는 자신이 조선말과 러시아 말 중 어느 말로 말하고 있는지 분간
이 안 갈 만큼 의식이 혼미했다.

(……)

여자는 염소젖이 든 양철통과 담요에 찢 빵을 그녀 앞에 놓아주고 돌
아섰다. 여자가 당나귀와 함께 구릉 너머로 사라지고 나서야 그녀는 자
신이 지은 죄가 뭔지 깨달았다. 따나의 죽은 아기가 달리는 열차 밖으로
던져질 때, 그녀는 자신의 뱃속 아기가 살아 있는 것에 안도했다.

염소젖과 빵을 먹고 간신히 기운을 차린 금실은 갈대밭에 들어가 아
기를 낳았다.(『떠도는 땅』, 276쪽)

금실은 타인의 고통에 대해 잠시나마, 어쩔 수 없이 무감각해졌던 스
스로를 자책하고 죄를 지었다고 생각한다. 죄에 대한 징벌로 자신을 비
롯한 고려인들이 사막, 폐허에 버려졌다고 믿는다. 나의 고통 때문에 남
의 고통을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마음의 사막에 이르게 만드는
것이라. 그러므로 금실과 원주민 여자와의 조우 장면은 타자의 고통에
대한 공감과 연대 그리고 환대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
을 말해준다.

고통을 받는 이유, 즉 죄에 대한 별로서만 자신이 겪는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그들의 고통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죄를 졌다고 자복하는 이유
는 무엇인가? 고통의 재현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인식하게 되
는가? 『떠도는 땅』에서 재현되는 고통에는 이처럼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반성적 사고로 이끄는 중요한 힘”이 있다. 고통은 인간으로 하
여금 ‘왜’라는 물음을 던지며 그 의미를 캐묻도록 촉발하기 때문이다. 고통
은 더 나아가 역사의 의미, 역사의 합리성에 대한 물음까지 던지게 한
다.³³⁾

33) 이기상, 『손봉호 지음, 고통받는 인간, 고통문제에 대한 철학적 성찰, 서울대학
교 출판부, 1995, 219쪽』, 『철학』 제45호, 한국철학회, 1995, 256쪽.

근대 이후 인간존재의 고통은 20세기 역사의 배면에 자리한 전체주의적 폭력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제 인간의 고통은 정치적, 윤리적, 인간적인 측면에서 조명되어야 할 복잡한 문제다.³⁴⁾ 무기력하고 무방비한 피투 속에 있는 역사적 존재로서 디아스포라, 그들의 처절한 실존적 경험을 재현하는 디아스포라 소설에서 고통의 의미는 실존적이며 반성적인 의미를 지닌다.

『떠도는 땅』의 인물들은 신산하고 절망적인 생존 여건 속에서도 황폐한 땅에 ‘씨앗’을 심으며 삶을 향한 의지를 간단없이 견지해나간다. 그곳에서 생의 의지와 신념, 생명력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리하여 새 생명을 낳고(금실), 새 생명을 잉태하고(요셉 부부),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삶을 꿈꾸며 터전을 일구려 하는(금실과 인설) 작품 결말의 의미는 생명의 시작, 삶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 금실과 인설, 요셉 부부 등 디아스포라 역사의 생존자들은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가까스로 힘을 내어 내딛는 기투의 현장을 보여준다. 그리하여 『떠도는 땅』은 역사의 마이너리티로서의 디아스포라뿐만 아니라 ‘길 위의 인간’이라는 인간의 본질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그 의미망이 보다 넓게 펼쳐질 수 있는 작품으로 볼 수 있다.

6. 나가며

기억은 인간 정체성의 공통의 틀로서의,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위한 더 나은 삶에의 공통의 희망³⁵⁾의 의미를 지닌다. 역사적 사건/사실에 대

고통의 의미와 역사의 합리성에 관해서는 손봉호의 『고통받는 인간 - 고통문제에 대한 철학적 성찰』(서울대학교출판부, 1995, 82-83쪽.)을 참고.

34) 한순미, 『고통, 말할 수 없는 것 - 역사적 기억에 대해 문학은 말할 수 있는가』, 『호남문화연구』 제45집, 호남학연구원, 2009. 9, 97쪽.

35) 허버트 허시, 앞의 책, 271쪽.

한 ‘인식’과 ‘기억’의 중요성은 문학적 재현이라는 행위 전반에서 잘 드러난다. 이때 소설가는 역사를 기록하고 증언한다. 이들은 역사의 필사가 혹은 복화술사를 자처하는 동시에 창조적 해석을 수행하기도 한다. 기억해야 할 역사를 선별하고 이를 기록함으로써 문학적 증언이라는 임무도 충실히 수행해낸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해석이나 평가에 신중하게 접근하면서도 상상력을 발휘하여 역사적 기억을 소설화하는 창작가는, 역사가 가까이에서 무게감 있게 자리하고 있다.

지금까지 디아스포라 문학의 관점에서 김숨의 『떠도는 땅』을 중심으로 기억, 공간, 목소리 등 서사성을 형성하는 주요 요소들을 탐색해보았다. 고려인 강제이주를 핵심사건으로 다룬 디아스포라 소설 『떠도는 땅』에서는 모국인 식민지 조선, 이주국이자 정주국인 러시아 연해주, 강제이주지인 중앙아시아 지역이 실제적인 ‘기억의 공간’으로서 재현되고 있다. 특히 작품 속에서 ‘땅(흙)’은 공간적 실체 즉 실물이면서 관념태로서 등장한다.

작품에서는 다성적인 목소리를 통해 디아스포라의 역사적 기억과 문학적 기억이 재형상화된다. 디아스포라의 삶에 대한 기억은 공간에 실존하고 있는 이들의 목소리를 통해 재현된다. 작가는 소외된 역사적 소수자들, 특히 고려인 디아스포라에 대한 기억을 복원하기 위해 다성적 목소리가 창출되는 서사 공간(땅/흙/집)을 마련한다. 그 공간에서 벌어지는 증언 또는 그 공간에 대한 증언이 디아스포라의 기억을 재현하는 데 매개 역할을 한다.

고려인 강제이주라는 역사적 기억은 작가 김숨의 문학 창작(행위)에 의해 문학적 기억으로 탄생, 탈바꿈했다. 실존적 의미에서 인간의 정체성은 기억과 인식에 기반하므로 구한말과 강제이주 시기 고려인 디아스포라에게 있어서 정체성의 의미는 다중적이며 생산적으로 모호하다. 무엇보다도 『떠도는 땅』의 서사는 디아스포라의 다양한 경험, 개별자로서의 경험을 강조하고 디아스포라 존재에 대한 인식, 정체성(존재론적 의

미)를 개별적 사례로 인식해야 함을 역설한다. 작품 속 복수 화자의 다성적인 목소리는 과거 역사의 증언일 뿐만 아니라 고려인 디아스포라의 미래를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인간의 삶은 지속된다. 떠나온 그들, 떠도는 그들에게도 이는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그들의 기억과 목소리의 재현은 인간의 생명력, 생명의 존엄성을 역설한다는 점에서 디아스포라 소설의 중요한 서사적 요소로서 디아스포라의 존재론적 가치 및 다가올 미래를 노정한다.³⁶⁾

36) 이 글의 완성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는 디아스포라 주체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역사소설과 증언의 형식에 대한 논구, 특히 이론적 측면에서 '기억'의 재현에 대한 섬세하고 정치한 적용과 더불어 김숨 소설이 가진 역사인식의 문제를 다른 작품까지 확장하고 체계화하여 한국소설사의 맥락에서 비교 검토하는 작업까지 필요하다. 미진한 논의는 추후 과제로 삼고자 한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김숨, 『떠도는 땅』, 은행나무, 2020.

2. 논문 및 단행본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편, 『코리언의 민족정체성』, 도서출판 선인, 2012.

권은선, 「증언, 트라우마, 서사 -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의 일본군 '위안부' 영화」, 『아시아영화연구』 제12권2호, 영화연구소, 2019, 7-32쪽.

김문주, 「디아스포라는 영원한 이방인인가?」, 『인문과학연구논총』 제36집1호, 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5, 63-82쪽.

김중희, 『한민족 문화권의 문학』, 국학자료원, 2003.

문재원, 「경계 횡단하기의 수행적 실천과 사이 정체성 - 경계지대의 문화번역으로서 이주민 영화와 공감장」, 『다문화와 디아스포라연구』 제12집, 한국다문화 디아스포라학회, 2018, 71-97쪽.

변학수, 『문학적 기억의 탄생』, 열린책들, 2008/2013.

배지연, 「기억의 서술과 문학적 재현 - 김숨의 일본군 '위안부' 관련 소설들을 중심으로」, 『우리말글』 제86집, 우리말글학회, 2020. 9, 245-276쪽.

배지연·권응상, 「(철)길 위의 사람들과 떠도는 영혼 - 김숨의 『떠도는 땅』에 나타나는 모빌리티와 이주의 문제를 중심으로」, 『어문론총』 제88호, 한국문학언어학회, 2021. 6, 67-101쪽.

손봉호, 『고통받는 인간 - 고통문제에 대한 철학적 성찰』, 서울대학교출판부, 1995/2014.

- 윤인진, 『코리안 디아스포라 - 재외한인의 이주, 적응, 정체성』, 고려대학교출판부, 2004.
- 이규정, 『사할린』1,2,3, 산지니, 2017.
- 이기상, 『손봉호 지음, 고통받는 인간, 고통문제에 대한 철학적 성찰,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5, 219쪽』, 『철학』 제45호, 한국철학회, 1995, 253-258쪽.
- 장사선·우정권, 『고려인 디아스포라 문학 연구』, 월인, 2005.
- 정찬영, 『한국 증언소설의 논리』, 예림기획, 2000.
- 주하영, 『이중의 디아스포라와 다중적 정체성 - 자리나 빔지와 에밀리 자시르를 중심으로』, 『미술사논단』 제42집, 한국미술연구소, 195-223쪽.
- 차선일, 『증언의 기록에서 기억의 시간으로 - 김숨, 『한 명』 (현대문학, 2016)』, 『오늘의 문예비평』 제103호, 오늘의문예비평, 2016. 12, 309-312쪽.
- 최경호, 『억압과 결핍의 시대 한국문학 - 동학농민문학에서 디아스포라 문학까지』, 한강, 2021.
- 하상일, 『증언소설과 역사 바로 세우기 - 김원일, 『푸른 혼』(이룸, 2005)』, 『실천문학』, 실천문학사, 2005. 5, 354-360쪽.
- 한순미, 『고통, 말할 수 없는 것 - 역사적 기억에 대해 문학은 말할 수 있는가』, 『호남문화연구』 제45집, 호남학연구원, 2009.9, 91-131쪽.
- 한용환, 『소설학 사전』, 고려원, 1995.
- 허윤, 『‘한국’의 번역과 한국계 문학에 관한 시론 - 수잔 최의 『외국인 학생』을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제39집, 이화어문학회 2016, 89-111쪽.
- 황은덕, 『디아스포라와 문화번역 - 수잔 최의 『외국인 학생』을 중심으로』, 『현대영미소설』 제20권1호, 한국현대영미소설학회, 2013,

151-174쪽.

알라이다 아스만, 변학수·채연숙 역, 『기억의 공간 - 문화적 기억의 형식과 변천』, 그린비출판사, 2012.

오토 프리드리히 볼노, 이기숙 역, 『인간과 공간』, 에코리브르, 2011.

허버트 허시, 강성현 역, 『제노사이드와 기억의 정치 - 삶을 위한 죽음의 연구』, 책세상, 2009.

3. 기타 자료

김남석, 인터뷰 『“디아스포라문학은 우리 문학 외연 넓힐 자산”』, 『국제신문』, 국제신문사, 2016. 8. 29.

백지은, 작가 인터뷰 『조금씩, 약하게』, 『AXT』, 제32호, 2020. 9, 은행나무, 54-81쪽.

조일준, 『21이 사랑한 작가 김숨② ‘뿌리 뽑힌 사람들’』, 『한겨레21』 제1326호, 한겨레신문사, 2020. 8. 14.

<Abstract>

Representation of Memory and Voice of
Diaspora
- Focusing on 『Wandering Land』 of Kim Soom

Lee, Sook*

This thesis is an article with the search for memory and voice recreated in the novel 『Wandering Land』 of Kim Soom with the point of view of Diaspora literature. Discussion on this article can be attributable to be the study with the focus on combining three elements of memory, space and voice that searched on the works formulating the historic experience for the author to scrutinize to this point.

The author, Kim Soom combines the historic memory from the tragedy of mandated migration of Goryeo people (1937) with the personal memory of characters in the work and represented it in literature memory by adding his professionalism. In 『Wandering Land』, the spatial imagination of the author has been thoroughly depicted and the space related to the life of Goryeo people, Diaspora, embracing Joseon, the colonized land of its home country, Siberia State of Russia, its migrated country, and Central Asia. In the narrative, this 'Erinnerungsräume' is depicted and visualized as the 'land (earth)' for farming and settlement. As such, the Erinnerungsräume for people of Goryeo in Diaspora could be

* Jeonbuk National University.

described as the space to contain the desire of historic community where they want to set their foot on and settle down.

The polyphony appearing in voice of multiple speakers accompanied with multiple focalization and diversified sound manifests the multiple identity of state and people. The narrative states that the identity of Goryeo people as being of Diaspora is a type of hybrid while it is to be acknowledged as an individual case with respect to existential awareness. The characters of 『Wandering Land』 with the respective stories unyieldingly sustained its strong drive and vitality toward the existence under the turbulent life condition. The author, Kim Soom, represented the memory and voice of existence for the lives of Yumaeng (wandering people, nomad) through his 『Wandering Land』 in a way of testifying the existential value of Diaspora in literature.

Key Words: Kim Soom, 『Wandering Land』, Diaspora, memory, space, voice, testifying, pain, life (vitality)

■ 논문접수 : 2021년 7월 31일

■ 심사완료 : 2021년 8월 19일

■ 게재확정 : 2021년 8월 19일